

전남 동부권



섬진강변 노니는 고니떼와 독수리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된 고니떼와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독수리가 어우러져 곡성을 섬진강변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 고니와 독수리는 가을이 되면 추위를 피해 우리나라 남해안 등지에서 월동하는 철새이다.

(국승재 제공)

광양시·광양제철, 중소기업경영컨설팅

동반성장 혁신 허브 사무국 개소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3일 중소기업의 교육장 및 워크숍 장소로 이용할 '동반성장 혁신 허브 사무국'(이하 혁신사무국)을 개소했다.

혁신사무국은 지난해 중소기업 경영력향상과 공생발전 기업 생태계 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 동반성장 혁신허브 협약'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광양제철소가 금호동에 마련했다. '혁신 허브활동'은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안전·노무·재무·기술 등 경영 전반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참여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11개 참여기업의 맞춤형 추진계획 수립과 활동 킷오프를 마친 상태다.

특히 '혁신활동 컨설팅'은 강한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혁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마인드 및 방법론 교육, 벤처마칭 등을 완료한 뒤 현재는 개선활동에 들어갔다.

또 혁신허브 컨설팅에는 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참여기업의 경영성과 증진을 위해 참여업체 전직원이 공장 물류 및 공정개선, 현장중심의 5S활동 생활화 등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중이다. 이상용 시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모범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기업 혁신허브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광양캠퍼스

해운 운송학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국내 최초 외국 고등교육기관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 캠퍼스(STC-Korea)는 올해 해운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제5기 '해운 운송학' 석사과정 신입생을 이달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1년간 강의·과제 교육 과정과 6개월의 논문작성 기간으로 구성되며, 네덜란드와 한국 석사학위가 동시에 수여된다. 해운운송학 석사과정은 주 5일, 하루 8시간의 교육이 총 40주 동안 진행되며, 1년 동안 4개의 교육모듈 수업과 1년 수업 후 6개월 동안의 논문작성 기간으로 구성된다.

선박과 운송 ▲운송과 항만 ▲해운경영 등 총 21개의 전문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실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 교수들이 영어로 강의를 하고, 토론·그룹과제 수행·발표 등 모든 교육과정 전체가 영어로 진행된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광양 캠퍼스 관계자는 "올해는 입학생 30명 전원에 1인당 10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졸업후에는 해운관련 기관과 선사, 무역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061-797-6700)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구례 친환경농업 일번지로

올 124억 투입... 경작면적 65% 인증 목표

기능성 오메가3 쌀 내년까지 100ha 조성

구례군이 FTA 체결 등 농산물 수출입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구례군은 "올해 경지면적의 65%를 인증목표로 설정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등 9개 분야에 124억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친환경농업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사업비를 ha당 최대 유기농 150만원, 무농약 100만원을 지원

한다. 또 유기농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 이상 무농약 단지를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집중 지도하고, 인증단계 상향을 위해 유기인증 농산물의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유기인증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음을 집중 홍보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농의 경우 ha당 60만원, 밭 120만원으로 52%가 인상됐으며, 무농약의 경우는 40만원, 밭 100만원으로 43%가 인상됐다. 또한 군은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 화교급식 납품과 대형 유통점인 홈플러스

스, 아이쿱(i-coop)생협, 가공업체 등에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쌀(오메가3 쌀) 생산 단지를 2012년에 40ha, 2013년 100ha가량 조성해 지역 전락상품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미 FTA 체결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 역시 친환경 축산물 확대와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지정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안전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복지형 축사시설 확충과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친환경농업 발전 위원회를 열고 친환경농업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를 활성화해 친환경농업 확산과 품목별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구례 용방 보건지소 준공

고흥 김 페스티벌 성료

최근 구례군 용방 보건지소가 완공됐다. 구례군은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단지를 2012년에 40ha, 2013년 100ha가량 조성해 지역 전락상품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미 FTA 체결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 역시 친환경 축산물 확대와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지정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안전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복지형 축사시설 확충과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친환경농업 발전 위원회를 열고 친환경농업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를 활성화해 친환경농업 확산과 품목별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지난 5~6일 고흥 팔영체육관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웰빙 김 페스티벌'이 성료됐다. 이번 행사에는 박병중 군수와 박상천 국회의원, 김덕술 김산업연합회장,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6개 시·도 18개 시·군 김 생산사업인과 수출업체, 관계기관 단체 등 3,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호남대 정미현·나기인 팀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김 품평회는 청해산업 이경춘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또 부대행사로는 김 산업 홍보관 운영과 김 가공품 전시회, 제래김 날기(건강) 시연회 등이 펼쳐졌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김 1억5000만 달러로 수출 1억불 달성을 기점으로 올해 지난해 2월 매년 정월 대보름을 '김의 날'로 제정했다. /동부취재본부=추기중기자 gju@

전북

판소리 다섯마당 영문 자막 나왔다

군산대 최동현 교수 연구팀 사설집 등 세계화 기틀 마련

지난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판소리의 세계화 기틀이 마련됐다. 군산대 최동현 교수의 연구팀은 최근 5년간의 작업 끝에 '춘향가'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판소리 다섯 마당의 사설집과 국·영문 자막을 완성했다. 연구팀은 판소리 한 바탕당 평균 6개의 바디(판소리의 버전)를 수집했고 5년 동안 매년 평균 300쪽 분량의 책 4권씩을 번역, 모두 21권의 사설집을 편찬했다. 소리꾼 혼자서 창과 톨깃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판소리는 세계무대에서 '1인 오케라'라 불리며 예술성을 인정받아 왔으나, 외국인들이 고전 문체와 한자성어 등 생소한 표현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판소리 세계화의 걸림돌이 돼 왔다. 이번 성과로 판소리 공연 중에 관객



들에게 국·영문 자막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영문 번역된 판소리 사설집 역시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판소리를 번역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열린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서 김경호 명창의 적벽가, 장문희 명창의 심청가 공연 중 직접 국·영문 자막을 시연해 국·내외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사진> 최 교수는 "판소리가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인 만큼 오페라처럼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줄거리를 전달해 줄 영문자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마을 안녕 기원 '고창 오거리 당산제'

고창군 고창읍 주민들이 6일 읍내리 오거리 당산에서 한해의 풍년과 마을안녕을 기원하며 당산 웃밧히기를 하고 있다. 고창 오거리 당산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마을 당산제로 지난 2007년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됐다. /연행뉴스

전주 동문거리 '예술의 거리'로 만든다

2016년까지 창작 예술촌 등 도시 재생 새 모델 조성

전주 동문거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문화재단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단계 창의기반 조성(2012~2013년) ▲2단계 지역문화예술 생태계구축(2014~2015년) ▲3단계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2016~)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올해는 도·시비 총 14억원을 들여 감기원 사거리와 한스타일진흥원에 이르는 동문거리 일원에 '시민예술촌'과 '예술창작 공간'과 같은 창작인프라가 조성되고,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

'시민예술촌'은 시민과 문화예술가들의 창작·교육·교류·발표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예술 거점공간이다. '예술창작 공간'은 빈 상가나 건물을 임대해 예술가와 문화단체가 입주, 지역주민과 예술로 소통하는 장소다. 재단은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주말 저녁 '길거리 예술가 공연'(Busker's Project)을 비롯해 동문거리 책 페스티벌, 공공미술·공공디자인·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통해 동문거리를 디자인하는 퍼블릭아트(public art) 페스티벌 등을 열 계획이다. 버스커즈 프로젝트는 동문네거리 등 동문거리내 특정장소를 지정해 주말 특정시간(오후 6~7시)에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도교육청, 군산기계공고 개방형 교장 공모

전북도교육청은 마이스터고로 지정·운영 중인 군산 기계공고 교장을 개방형으로 공개모집한다. 접수기간은 11일까지이다. 개방형 교장(임기 4년) 공모제는 지원 범위가 전국 단위에서 지역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군산기계공고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교장 자격증이 없는 민간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다. 교장은 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자율편성이 가능하고, 정원의 50%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산학협력교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행안부, 정읍 3개 마을기업 1억 3000만원 지원

정읍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인 마을기업에 3개 사업(신규 2, 계속 1)이 선정돼 1억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선정된 신규사업은 ▲쌀 고을시장 상인회 '공동택배사업' ▲동진강살리기 정읍네트워크 '동진강(정읍천)을 활용한 마을 기업 육성사업'이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또 철보 벌수마을 '유휴경지를 활용한 친환경 입산물(산채) 재배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선정됐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쌀고을시장 택배사업과 동진강(정읍천)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각각 5000만원이 지원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호박고구마 전국 대형마트서 인기

순창에서 생산된 호박고구마가 제주도 등 전국 대형 마트에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순창군 금과, 팔덕, 북흥, 상치면 등 4개 지역 30여ha에서 350여의 호박고구마를 생

산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호박고구마가 새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호박고구마는 1000㎡당 1500kg을 생산해 쌀 농사보다 2배 높은 평균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북대 고창캠퍼스 목조건축 교육생 모집

전북대 고창캠퍼스는 오는 17일까지 목조건축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전북대는 고창군으로부터 옛 폴리텍대학 고창캠퍼스의 건물과 부지를 양도받아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교육용 장비를 마련

하고 있다. 전북대는 3월부터 7월 까지 무료로 진행한다. 지원 서류는 고창캠퍼스와 전주 캠퍼스 공대에서 접수, 20일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문의(063-561-5206)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아·태 무형문화유산 축제 6월 개막

전주한옥마을 일대서

각국 민속음악·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2012 전주 아·태 무형문화유산 축제'가 오는 6월 2~4일 사흘 동안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된다. '삶의 이야기와 도구'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무형문화재 초청공연과 기획전시, 국제 학술대회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치러진다. 공연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외 인물과 공연팀이

각국의 민속 음악과 춤 등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전시에서는 아·태지역의 명인·명장이 만든 작품과 그 제작과정을 보여준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와 각국의 '시장 문화'를 보여주는 카페도 마련된다. 전주시 장경문 전통문화과장은 "조만간 자문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기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중 심지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